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김신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쓴 감기약을 물 없이 삼키는 기분
소 속	한서대 학군단
군 번 / 계 급	522210
이 름	신상훈

시집이 아닌 책을 읽을 때, 항상 “글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와닿지 않았다. 그러나 군인의 티가 나는 딱딱한 어투, 잘 쓴 문장이라기보단 어딘가 어색한 부자연스러움 때문이었을까. 이상하게도, 책 속 김 신 장군과 내가 어떤 공간에 놓여있는 것 같았다. 영접의 시간에서 벗어난 주변이 백색으로 가득 찬 어느 공간이 떠올랐다. 오로지 우리 둘만 이야기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 특히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면서도 볼 수가 없음에, 아버지가 준 편지에 붙은 우표의 향기를 맡으며 그렇게라도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밖에 없었다는 글이 내게 살아서 다가왔다.

나였다면 어땠을까. 민족의 아버지였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힘이 있었던 백범선생의 아들로 태어난 기분은 어땠을까. 자신도 아버지처럼 돼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과 책임감에 녹아들어 살았을까. 외롭고 쓸쓸했겠다는 감정이 느껴졌다.

그는 아버지와 한집에서 살지 못했다. 남아있는 사람은 할머니뿐이었고, 둘 다 서로에게 의존했다. 그렇기에 할머니도 김 신을 필요로 했고, 김 신도 할머니를 필요로 했다. 그래서 더 애뜻하게 할머니를 회고록에 적었나 보다.

제6대 공군참모총장, 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것은 표면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업적이다. 누군가에게는 조너경과 선망의 대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김 신 회고록에서 비추어진 그의 인생은 많이 씁쓸해 보이고 써 보였다. 매 순간이 쓴 감기약을 물 없이 삼키는 것 같았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떠나서, 연민과 동정 같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그가 인격체로서 안쓰러워 보였다. 특히나, 태어나 처음 찍은 사진이 어머니 무덤이라는, 그러나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책 속 문장이 내 마음을

몹시 아리게 했다.

심사자
기록사항

누구나 인간이라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생존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두기 마련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며, 그저 남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어한다. 그럼에도 김 신은, 일본의 무차별 폭격에, 나고 자란 조국이 초토화가 되면서 복수하기 위해 조종사가 됐다. 자신의 전부였던 할머니를 잃은 슬픔을 끌어안고, 본인이 죽을 수도 있음에도 생존 욕구를 버리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조종사가 된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은 아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조국의 독립 이념을 따라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해 몇 없는 조종사가 되겠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하는 신념의 거름 덕분에, 우리가 대한 민국이라는 열매를 맺어 살고 있다. 슬프게도 나 또한 안도감에 취해 젖어 현시에 안주하며 살고 있는데, 많이 반성했다.

우리는 선망을 주는, 훌륭한 사람의 인생을 무의식 중에 따라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나 또한 회고록을 읽으며 책 속 김 신의 인생을 가슴으로 포용해 보면서, 것처럼 살고 싶었다. 그가 되진 못하더라도, 그의 신념을 따르고 싶었다. 나는 김 신 장군처럼, 나라를 잃은 고통을 알지 못한다.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복과 행운이 충만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절대적 빈곤과 조국의 주권을 잃은 슬픔에 살았던 과거 사람들의 심정을 어떻게든 온전히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다. 공복으로 국가가 주권을 회복하고 경제 성장을 급속히 이룸에 따라 광복 및 6.25 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 이후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희열을 느꼈던 독립의 기쁨이 흐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김 신 장군이 회고록에서 전하고자 하는 본질은 깨달으려고

심사자
기록사항

노력했다.

김 신은 조국의 영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힘겹게 자란 유년 시절, 평범하지 못했던 가족, 백범 선생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의 일본군의 특별한 감시를 받으며 치열하게 살았다.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본인을 갈고 닦아 희생하여 푸른 하늘을 나는 조종사가 됐다. 하나 의문점이 드는 건, 그는 공군에서 전역한 이후 풍족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제6대 공군참모총장, 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무엇을 이루고 싶었을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어쩌면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국가를 잃은 좌절감, 무력감을 우리 후세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에 그랬을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김 신 장군의 전략 중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이라 생각한다. 미국과 유엔군이 500회 이상 출격해도 성공 못 시켰던 작전이었는데, 김 신 장군의 목숨을 건 '저공침투비행' 이라는 새로운 공격 전술 덕분에 작전을 성공시킨다. 그는 목숨이 다하는 5분 전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 조국을 위한 희생 정신이 돋보였다.

회고록을 읽고 내내, 단순히 김 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며 그의 훌륭함에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 신 장군을 통해 내가 장교가 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시금 상기해 보고, 내가 나아 갈 공군 장교로서 미래를 그려보고 싶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김 신은 일본의 무차별 폭격에, 그가 나고 자란 조국이 초토화가 되면서 복수하기 위해 조종사가 됐다. 그러나 독립이 된 이후,

역설절이게도 조국의 하늘을 지키고자 배운 조종술이,

동족에게 쓰이게 되면서 슬퍼했다. 전투기를 타고 38선을 넘을 때마다 그는 “어쩌다 이리 됐을까.” 생각했다고 한다. 내 소중한 생명,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차가운 조종간을 쥐고 비행술에 매진했지만, 그가 처한 현실과, 바라던 이상 사이의 괴리감에 놓인 그의 기분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사색에 잠겼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기도 하다.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 현재를 냉정히 바라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김 신 장군은 민족상잔(民族相殘)의 고통 같은 이런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겨레 가득한 뜻을 제복에 담아 지난 날들을 회고해 글을 썼다고 한다. 이것이 그가 전하고자 했던 본질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장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공군에 이바지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꽃길을 위해, 그들의 꽃길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여 학군단에 입단했다. 공군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를 벗 삼아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을 가지는 그런 공군 장교가 되어야 함을 이번 회고록을 읽으며 느꼈다.

가끔 나는 자기 전 어떤 장교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

그러나 머릿속에 먹구름이 낀 듯, 추상적이기만 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 솔직히 잘 몰랐다. 김 신 회고록을 읽으면서, 단순히 학군단에 입단하여 공군 장교가 되겠다는 맹목적인 목표보다는, 이 땅의 주어진 자유가 절대 당연한 것임이 아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나라가 나를 먼저 필요로 하는

장교가 되겠다고 동사 형태로 목표와 꿈을 재정의했다.

심사자
기록사항

안개 같은 추상적인 흐려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조종 특기가 아니라서, 김신 장군처럼 조종사가 돼 직접적 영공을 지킬 수는 없지만, 조종사가 작전을 성공할 수 있게 든든하게 후방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회고록에 나에게 투영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우리 국민들이 두 발 뻗고 편안히 자고, 그들이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고, 지루한 나날들을 가끔 보낼 수 있게 조국의 영공을 수호하겠다고 의지를 다시 다진다. 끝없는 캄캄한 터널을 걷는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후세가 걷기 위한 빛을 밝히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헌신해 주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묵념하며, 어린 소년이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의 글을 첨언하며, 독후감을 마무리 한다.

- 캄캄한 밤길을 걷는 막막한 심정 속에 불안과 외로움을 떨어야 했던 소년 시절과 청년시절, 의로움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선열들이 있었기에 나는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김 신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가장 낮은 순간에도 가장 높은 힘이 되어라
소 속	경상국립대학교 공군 학생군사단
군 번 / 계 급	514103 / 학군사관 후보생
이 름	김기현

가장 낮은 순간에도 가장 높은 힘이 되어라

심사자
기록사항

514103 공군 학군사관 후보생 4학년 김기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 책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이었다. 아니, 어쩌면 예전부터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던져왔었다.

그럴 때 마다 앞에 닥친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 오늘은 쉬고 보자, 라는 변명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해서 외면해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기 전,
그저 김 신 장군의 회고록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책은 아름답게 들렸던 내
속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책을 읽으면
서 김 신 장군의 행동과 판단 하나하나가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 놀랍
도록 부합했고 어려운 역경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한 목
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한 과정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해서 이
회고록을 통해 예전부터 던져왔던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기로 하였고 그
과정을 본고에 적어 보기로 하였다.

원래의 나였다면 이 책을 읽고 나서 든 감정은 감사함과 안타까움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질문을 의식하고 다시 읽기 시작했을 땐 이상하
게도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적이 있는가, 다 해보았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의 질문들이 꼬
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포기를 경험했던 내 자신이 먼저
생각났기 때문이다. 김 신 장군은 곳곳에서 발생한 공습과 많은 적의 타겟
이 되었던 독립운동가 아버지로 인해 잦은 피란길에 오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피란길 도중, 할머니와 형을 잃어야 했던 그 절망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비행사가 되어야겠다는

일념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나와 너무 비교되었다.

심사자
기록사항

원한다면 내하고 싶은 것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재 상황 자체부터 비교되었다.

해서 이러한 포기하지 않는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김 신 장군은 자신만의 철학이 이때부터 이미 갖춰졌고 이를 토대로 목표점을 향해 달려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제 2장과 3장에서 김 신 장군의 철학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난다. 김 신 장군의 유년기, 피란길에 오를 무렵, 그의 형인 김 인은 충청에서 생활하다가 민가의 공장에서 내뿜는 석탄 연기에 폐병으로 병을 앓았다. 병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자, 기대를 걸어볼 것은 페니실린뿐 이었는데, 일본군의 봉쇄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 김구 선생님의 힘 밖에 없었다. 그러자 돌아온 김구 선생님의 한 마디는 “여기 와 있는 동지들 중에 그 병을 앓다 죽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단 말이나.” 였다. 그 말을 들은 형님의 아내 형수의 원망도 컸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내왔던 형님의 아쉬운 이별, 그것과 더불어 키워주신 할머니 역시 잃어야만 했던 아버지의 상황과 현실들이 김 신 장군으로 하여금 많은 원망을 불러 일으켰을 것 같다. 내가 당시 김 신 장군의 입장이었다면 남들에게 존경 받는 아버지 일지라도 나에게서는 그저 원망의 대상에 불과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또한 조종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황에서 당시 비행 훈련 중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았던 미국 비행학교에 입교할 때 아버지가 보내 온 편지에서도 그 서운한 감정이 컸었다고 언급했다. 조종 훈련을 받다 목숨을 잃은 사례가 많았기에 독자(슬하 자식이 한 명 뿐인 사람)는 비행 학교 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님을 잃은 터라

해서 고민 중에 아버지 김구 선생님의 허락으로 판단하기로 하고 조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이 때 김 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돌아온다니, 무슨 얘기냐? 나라가 수립돼도 너 같은 인재 를 양성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너는 이미 발을 들여놨으니 공부를 계속해라.”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이는 하나 밖에 남지 않은 자식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오직 나라의 미래만을 생각했던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김구 선생님의 목표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후에 김 신 장군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에 있어서 행동의 척도가 되었던 것 같다.

일례로 김구 선생님이 암살의 위협이 도사려 국내 활동을 자제하라는 말에도 “어떻게 찾은 나라인데 내가 조국을 떠난단 말입니까. 내일 목이 꺾이더라도 할 일은 해야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후에 모든 실패 가능성이 있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법을 모색해 나아가라는 아버지의 철학이 담긴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렇기에 아버지의 철학을 이어받은 김 신 장군 역시 훌륭한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었다. 이런 훌륭한 철학이 목표를 설정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김 신 장군의 철학이 돋보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더욱 인상 깊게 읽은 장면이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은 인민군의 주 보급로였던 승호리 철교를 끊지 못하였지만, 김 신 장군의 폭격이 작전의 성공을 이끌었다. 미군조차 실패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을 철교를 폭파하여 전선을 유리하게 뒤집어야겠다는 일념 하나와 오히려 실패의 가능성이 더 높았던 순간에도 저고도 출격 횡수 반복이라는 방법을 찾아내었던 아버지의 철학이 성공으로 만

들었던 것이다.

심사자
기록사항

그 결과 철교 뿐 만아니라 근방의 주요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었다.

김 신 장군은 전역 후에도 외교관, 국회의원, 교통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직업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철학과 자신의 삶에 대한 철학은 관철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갑작스럽게 일을 시작해보는 나의 즉흥적인 성격은 한꺼번에 많은 일을 벌이는 상황을 만들었다. 하여 그 일을 시작한 목적성을 잃기 십상이었고 목적성이 잃어버리니 그에 맞는 준비나 행동도 하기 꺼려졌다. 이는 곧 실패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과 의욕을 상실해버렸던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나와 안 맞는 일'이라고 정의내렸던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긍정적이고 활발했던 순간들도 많은 일을 벌이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전쟁 영화를 보고 멋진 장교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인해, 장교가 되기 위한 다양한 시험에 도전했었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번번이 떨어졌었다. 장교가 되기 위한 시험에 모두 불합격했을 때 즈음 내가 속해 있는 공군 학군사관이 창설되었고 장교가 되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마지막 시험이다 생각하고 필기와 체력검정, 그리고 면접을 더 열심히 준비했었다. 그 때의 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할 정도로 기억난다. 그 만큼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는 나의 모습이 생애에서 가장 의미 있고 살아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즉, 즉흥적으로 생각했던 일과 목표가 실패와 성공으로 나뉘는 그 순간이 가장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이자 가장 의미있고 활발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첫 번째 언급했던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한다. 현재의 나는 장교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아무생각 없이 흘러가는 하루에 몸을

심사자
기록사항

맡기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매우 혼란스러워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읽으면서 찾은 나의 답은 현재 나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었다. '어떻게 장교가 되는지'에만 급급했지 정작 가장 중요한 '어떤 장교가 되는지'에는 나 자신에게 묻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역시 김 신 장군의 철학에서 찾아볼 예정이다. 여태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일에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다. 많은 도전은 많은 좌절을 낳겠지만 김 신 장군의 철학처럼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가장 실패에 가까운 낮은 순간에서도 언제나 가장 높이 날 수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다. 이러한 철학과 목표를 가슴 속 깊이 새겨야겠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김신 장군을 보며
소 속	연세대학교 공군학군단
군 번 / 계 급	527101 / 후보생
이 름	한상훈

내가 느낀 김신 장군은 어떤 분이셨는지 세 가지로 표현

심사자
기록사항

해보면서 이 책을 읽고 난 후의 느낀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먼저, 김신 장군은 근현대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라고 표현해보고 싶다. 김구 선생의 아들, 대한민국 공군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제외하고, 일제강점기, 광복, 6.25전쟁, 민주주의 수립과정 등 1900년대 대한민국의 수많은 희노애락을 겪으신 것만으로도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이 쓰신 회고록을 읽으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사를 배우면서 다양한 사실을 접했다는 것에 나름 만족했는데, 어쩌면 제한된 지식을 바탕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었다 되돌아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잘했다고 칭송받는 과거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아픔이 존재한다든지, 한국사를 배우며 의문이 들었던 사건이 왜 그렇게 일어날 수 밖에 없었는지 등 김신 장군의 경험과 사실을 바탕으로 이해해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김신 장군은 진실함과 정직함을 삶의 무기로 삼았던 분이라고 표현해본다. 중국 공군에서 활약하면서 장제스 총통과 맺은 관계, 군대 지휘관으로서의 삶,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계로부터 받았던 공작 등 책에서 언급된 사건 속에서, 김신 장군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였다. 때로는 이 내재적인 가치가 본인에게 손해를 가져다줄 수 있었지만, 김신 장군은 몇 수 앞을 내다보듯이 위의 두 가지를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닦쳐오는 어려움에 의연히 대처하였다. 나는 순간의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거나,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진실과 정직, 두 가치를 두고 타협할 때가 종종 있다. 지나고 보면 타협을 하지 않더라도

결론적으로 나에게 선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되는 경우가

심사자
기록사항

많이 있었기에 과거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김신 장군을 보면서 나도 머지않은 미래에 공인이 될 사람인데 이런 마음가짐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되새기고, 타협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대가를 줄여나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신 장군은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분이
다. 중국 공군 소속에서부터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까지, 전역 이후에 타이
완 대사 등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가의 쓰임을 받으면서 본인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셨다. 어떤 일을 할 때, 후
반부에 가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좀 쉬어볼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
의 습성이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
일을 마무리 짓거나 내려놓지 않는 이상, 본인을 믿고 책임을 맡기는 국가
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끝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느낀다. 그리고 본인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았던 김신 장군과 같이 누가 알
아주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에 정진하다보면 주변 사람들이 잘
알고,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존경받는 사람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삶의 법칙에 가까운 것 같다고도 느꼈다.

세계가 주목할 만큼 빠르게 성장했고, 국방력 또한 세계 6위에 달할 만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충분히 발전하였다. 공군 장교로 국가를 위해서 일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이렇게 발전한 국가에서 기여 할 수 있
는 부분이 있기는 한 걸까,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나의 발전
에는 도움이 안되는 건 아닐까라고 고민을 할 때가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 그 고민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

먼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나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해서, 국가의 일을 함으로써 나의 발전이 가로막히는 정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주어진 업무 자체가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국가의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자기계발 등을 통해서 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김신 장군의 모습에서도 발견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가의 발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김신 장군의 태도처럼 의연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본다. 그 때 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그간의 업무 경험, 자기계발이 알맞게 쓰이는 때가 오면서 결국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활주로의 빛처럼
소 속	경상국립대 공군학군단
군 번 / 계 급	514109 / 후보생
이 름	조정빈

활주로의 빛처럼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과거를 잊은 양,

전쟁을 다시 일으키고있다.

전쟁이란 마치 오래된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매체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억하고자 만들었던 그 노력이 무색하게 지구촌은 다시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국가의 정체성을 잃는 것은 가족을 잃음이요, 나를 잃음과 같다. 이 아픔을 짊어지고 나라를 되찾고자, 나라는 인물을 되찾고자 애썼던 인물들의 한에 사무친 이야기는 깊고도 여운에 남는 울림을 준다.

일제의 탄압과 굶은 생활난, 당시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고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에 은밀히, 그리고 장렬히 전사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서사를 재현한 매체들은 현대 시민들에게도 애국심과 큰 자부심을 안겨다 준다.

광복을 위하여 노력한 민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는 역사 시간 때 책상 앞에 앉아 시험에 나올 단어들의 조합을 달달 외우는 것이 고작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설, 한민애국단, 항일무력 투쟁... 그 짧은 단어 속 실상에 대해 생각해볼 여력은 없었다, 이 책을 보기 전까진.

이 책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개설에 주력하고 한민애국단을 조직하여 항일무력 투쟁을 전개하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아들의 시선으로 그때 당시의 사건을 조명한다. 그 당시 위인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열악했다. 유아기 이후로 부모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며 독립운동가의 식솔이라는 명분에 가난과 피난으로 점철된 유년기를 보내는 모습에서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상기하게 되었다.

책으로 전쟁을 배워온 나의 입장에, 전쟁은 많은 것을 잃게 하지만, 한 편으로는 그 시대에 싸우는 의로운 이가 있기에 빛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나는 정작 나라를 위해 역사에 남을 정도로

노력한 이의 초상화는 빛날지 몰라도, 그의 가족이 보는 그의

심사자
기록사항

뒷모습은 어두워 보인다는 것을, 나는 간과하고 있었다. 그렇게 현실의 큰 어려움과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하고 또 실제로 죽는 것이 다반사였던 시대에 끝까지 자신이 아닌 나라를 위했던 이들의 선택이 실로 대단하고, 김신 선생님의 경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라를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비행 훈련을 마치고 광복, 그리고 내전이라는 또 다른 비극을 마주하기까지 매우 파란만장하고 혼란한 시대의 중앙에서 살아 남으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승만 박사, 박정희 장군 등 근현대사에 핵심적인 인물들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직급으로 언급되고,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공군 참모총장으로서 그 사건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었던 점이 색다르게 느껴져 인상 깊었다. 또한 쿠데타 이후 총장의 재산 남용을 방지하고 “나는 전쟁에서 용감히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유용하게 쓰는 것도 군인의 애국이라 생각한다.”(본문 216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군인의 자세와 마음가짐이란 무엇인지 스스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갖가지 부정과 유혹에 현혹되기 쉬운데,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고 고집할 수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는데, ‘한 번 배운 옳은 길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으며 행동하고, 그 이후 조금이나마 나아진 상황과 후배들의 존경을 바라보며 만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되었고 이를 본받아 나 또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념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라 잃은 시대를 직접 겪고 민족의 분단과 갈등을 가까운 곳에 서서 본 사람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없어야 하고, 모두가 민족의 화합과 협력을 통한 평화를 가져야 한다”라는 점이 앞으로 우리 민

족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지

심사자
기록사항

마음 깊은 울림을 준다고 생각한다. 책에선 비행 훈련을 받으시던 중, 여러 물체에 의해 시선이 분산되는 주간 비행보다 활주로에만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야간 비행이 오히려 이착륙이 쉽다고 언급하셨던 부분이 있었다. 나는 이 대목이 민족의 어두운 시기에도 바른길을 알려주는 이들이 있어 준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란, 하나의 희망의 표시처럼 느껴져 '이게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관통하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립투사 한 사람만이 아닌 그들을 둘러싼 가족을 비롯한 모든 민족이 고통을 겪었듯이, 공동체로서 나라를 염려하며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앞으로도 활주로의 빛처럼 수놓아졌으면 한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김신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곧은 신념과 헌신으로 지켜낸 조국
소 속	한서대 학군단
군 번 / 계 급	522202
이 름	박경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처음 시작하는 시기에는

심사자
기록사항

타오르는 열정과 내가 목표한 바를 꼭 이루겠가는 신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열정이 식고 고됨이 찾아오는 순간 내가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며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

전공을 살려 공군 장교이자 전투 조종사로서 조국의 하늘을 지키며 봉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한 훈련이었지만, 익어버릴 것만 같은 열기 속에서 고된 훈련을 받고,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훈련속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나날들이었다.

개인 책장마다 한 권씩 놓여져 있던 김신 장군의 회고록 '조국의 하늘을 날다'는 배우고 익혀 국가에 봉사해보자는 내 목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며, 사소한 것에 낙담하던 지난 나를 반성하게 해주는 책이었다.

민족이 국가를 외세에 빼앗기고, 핍박받아야 했던 어두웠던 날들 속에서 김신 장군은 가난한 가정 형편 속에서 김용대 선생의 도움을 받아 수학 여행비를 마련하여 미림비행장으로 견학을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비행사의 꿈을 가져 하늘을 날며 외세로부터 조국의 영공과 자유를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중국군관학교에 입학, 인도, 라호르 기지 생활을 거쳐 미국 본토까지, 긴 외지 생활을 해야만 했다. 1945년 8월 우리민족이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한 그 날에도, 김신 장군은 아버지의 뜻과 반드시 비행사가 되어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비행 훈련에 매진하여 47년이 되어서야 우리나라 땅을 밟았다. 그토록 바라던 조국의 광복이었지만, 그는 어렵게 하늘을 날 기회를 얻었고 독립운동가 아버지가 곁에서 오직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민족의 곁을 떠나간 수많은 순국선열을 보면서 단단한 각오와 조종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던것이다.

김신 장군의 굳은 의지, 진심 어린 마음과 간절함을 보면서

심사자
기록사항

쉽게 기회를 얻고, 목표한 바를 잊고 빨리 포기하려 했던 지난 나의 모습을 반성하게 된 부분이었다. 사람들에게 시작이라도 해보라고 독려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는 너무나 쉽게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와 간절함도 약했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빨리 찾아왔다. 내가 이렇게 쉽게 기회를 얻고,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간절함과 처절함으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였던 김신 장군과 같은 우리나라의 기반을 다진 선조들의 덕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김신 장군은 각고의 노력으로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키러 대한민국에 돌아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1950년 발발한 6.25전쟁에서 기습 남침한 북한군에 맞서 당시 우리나라에 몇 없는 조종사로서 머스탱 전투기를 인수하고,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을 완벽히 수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맞섰으며, 전후 공군 참모총장으로서 공군의 발전을 위해 맞섰으며, 전후 공군 참모총장으로서 공군의 발전을 위해 일하였으며,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 있던 시절, 장제스 총통과의 연분을 바탕으로 중화민국 대사로서도, 이후 교통부 장관으로서 평생을 국가에 바치시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 전쟁에서 적과의 싸움,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중압감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책임감과의 싸움을 하셨다.

그가 군인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대표이자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맡은 이유는 명확하다.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즉 '애국'에 기반한 헌신인 것이다.

그는 단순히 자기가 원하던 '비행사'로서의 삶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굳이 비행사로서의 일이 아니더라도 나라가 부른다면, 나라가 필요로 한다면 나서는

진정한 '애국자'로서의 삶에 충실하였던 것이다.

그런 그의 삶을 보면서 전투조종사가 되어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목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국가의 부름에도 응한다는 헌신의 마음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뇌우치며 예전에 읽은 논어에 수록된 공자의 말씀인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無論你要去那里 專心地去)'는 글이 떠올랐다. 전투조종사는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내 목표의 수단일 뿐이다.

그 수단에 집중하게 되면 기존의 목표가 희미해져 결국 국가에 대한 봉사보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다.

김신 장군은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한평생 사신 분이다. 그의 삶은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으며 우리나라의 시작을 함께하고 그 기반을 쌓아 올리신 분으로서 그의 삶은 모든 이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다. 장군의 삶이 모범이 된 이유에는 비참한 시대 상황 속 고난과 시련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굳건한 의지와 신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김신 장군의 삶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내가 공군 장교가 되고자 했던 궁극적 이유인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비록 혼란스러운 상황과 비운적인 개인 상황이 닥칠지라도 후배 공군인들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았던 김신 장군과 지금 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발전된 대한민국을 물려 주신 우리 선조들이 있었다.

조금의 파도에도 흔들리는 오늘날의 우리는 앞선 큰 풍파를 맞으며 나라를 일궈낸 그들을 생각하며 흔들림 없이 처음의 신념을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헌신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지금은 그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복잡한 국제 정세와 날로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인한 미래 전장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다차원적으로 변화할 것이 예상된다.

심사자
기록사항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국가를 위한 일, 국가를 지키는 일을 선택한 김신 장군처럼 수많은 역경과 갈등 속에서 많은 이의 희생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책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공군의 학군사관후보생으로서 조국의 하늘을 지키며 봉사하고 싶다는 지금의 다짐을 새기며 헌신의 길을 걸어가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이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백범의 아들 김신 회고록
제 목	창공의 파랑새
소 속	경상국립대학교 학군단
군 번 / 계 급	524101/ 후보생
이 름	김상익

내가 읽을 책을 고르는 것은 간단하다. 마치 아무 디저트 가게에 들어가서 그저 달콤해 보이는 것을 고르는 것처럼. 책도 수 만권의 책들 사이에서 조용히 내 눈길을 사로잡은 책들을 읽는 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국의 하늘을 날다」와 나의 만남은 꽤 독특했다. 작년 겨울 2월 때아닌 눈이 장교교육대대를 품었을 때. 제설작업을 마치고 봉 뜨게 된 시간. 적당한 두께를 가진 이 한 권뿐인 책은 나를 끌어들이기 충분했다. 시간과 장소, 환경이 이 책을 가리켰고 나는 그 부름에 따랐다. 그 내용은 김신, 백범의 아들로 알려진 사람의 자서전이었다. 이 화자의 삶은 애달팠다. 2002년에 태어난 나로서는 겪어볼 수도, 공감할 수도 없는 어딘가 반전된 이야기 속에서 살아왔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투사였던 아버지 아래 도망자 신세로 타국에서 태어나 2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고아원에서 지내도 보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이러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또 민족의 아픔인 6.25 전쟁도 겪었다. 이 화자의 삶은 나에게 막연했다. 또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 분명 이 화자가 이야기하는 삶은 잔혹동화가 아닌 무정한 역사 속에 쓰인 그가 살아온 세상 그 자체였다. 그 부분이 더욱 내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부모님에게 사랑받으면서 여름에는 친구들과 쏘다니고 겨울에는 썩썩거리며 눈싸움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 아이들이 어째서 그런 고통을 받아야만 했는지. 또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겪어온 세상은 평화와 행복의 현현이었다. 따스한 부모님 아래 부족함 없이 먹고 자고 쓸 수 있었으며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싶은 것은 배울 수 있었다. 동트기 전 푸른 세상에서 달리기도 하고, 낮 동안엔 친구들과 떠들며 게임도 하고, 밤이 오면 오리온자리를 보며 꿈에 젖었던

삶이었다. 내가 살아온 세상은 이처럼 다정하고 단순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이를 수 있다고.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갈 거라며 지금도 믿고 있다.

응당 아이라면 이래야 한다. 어른들이 지키는 세상 아래에서 그저 자신의 꿈을 믿고 이루어가며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전쟁, 살인, 사기, 강탈 등과 같은 단어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은 다정하지 않았고 무정했다. 그저 고고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 속에서 화자는 비합리적인 상황에서 그 문제를 유년부터 온전히 떠안았다. 이 화자뿐만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 자신 때문에 야기된 일이 아닌 세상의 심판에서 이 시대의 아이들은 전부 피해자였다. 이래선 안 된다. 아이들은 그저 행복해야 한다. 고통받으면 안 된다. 아이들이 고통받는다면 그건 아이의 잘못이 아닌 고통받는 세상을 만든 책임을 어른이 지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태양은 우리 머리를 평등하게 비추듯이. 피폐한 세상도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이자 우리들의 선배이신 앞선 선조들이 고통으로 이루어낸 이 평화를 잃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들의 실수로 놓치게 된다면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도 함께 고통받기에.

나는 이 평화를 지키고 싶다. 내가 맞본, 내가 느껴온 세상이 너무나도 안락했기에 이를 나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섰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기에 다른 이들이 걷지 않는 이 길을 걷는다.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고 평화를 지킨다는 말의 책임과 중요성을 알기에.

또 화자 김신에게 묻고 싶은 점이 있다. 그렇게 고통받았으면서, 세상이 지옥임에도 당신이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그는 책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본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었다. 이것이 내가 느낀 점이다. 또 이 부분을 좋아한다.

어떠한 동력원 때문에 나아가는 것도 충분히 멋진 일이지만 이 화자는 그저 해야 하니깐 할 뿐이었다.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인정받지 않아도 자신이 그리는 미래를 믿으니까. 그저 고고히 앞으로 나아간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는 자신의 신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동화가 아닌 역사에 기록된 아픔 속에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희생한 영웅 김신을 대단히 존경하지만, 또 그와 같은 전철을 밟는 아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이 평화를 지켜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를 과거 유년 시절의 김신에게 지고 있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군인 김신과 나
소		속	부사관학군단
단		번	108029
이		름	이정민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백범 김구의 아들이 저자라는 사실과 그가 공군 참모총장까지 지낸 공군 출신이라는 사실은 내 흥미를 끌기 충분했다. 어릴 적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에 일제 강점기와 근대사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군인이라는 길을 선택하고 그 시작점인 지금, 이 책에 담긴 김신과 조상들의 정신은 나에게 훨씬 더 크고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왔다.

김신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남아있었지만, 아버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하느라 자식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대신 그에게는 강인하고 손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할머니가 계셨고, 김신은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그러나 독립 운동을 하시는 아버지와 계속 떨어져 지내며 도망치는 생활을 해야만 했으며, 그마저 돌봐주시던 할머니와 하나뿐인 형님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그래서 김신은 외톨이였던 시간이 많았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다.

태산같이 항상 내 뒤에 계셔주실 줄 알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작년은 아무것도 못하고 정신도 차리지 못했다. 김신도 분명 나와 같았을 것이다. 그 시절에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일까. 가족을 잃은 후에도 꺾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김신의 모습이 경외스러웠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김신은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탄 조종사들을 보았다. 그곳에서 비행사가 되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미래의 전쟁은 항공력이 우선이다”라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 중국 공군 군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미국 비행학교 정규과정을 마치고 비행사가 되었다. 이후 김신은 대한민국 공군의 창립멤버가 되었고, 제 6대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다. 또한 6.25전쟁이 발발하고 한국 공군 내에

서 무스탕 전투기 정규교육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었다.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그는 중국어와 영어에 능통해 외국 장교 및 고위 인사들과의 소통으로 국익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타이완 대사까지 역임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둘도 없는 귀한 인재였다. 그러나 그는 몸을 사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전투비행전대장으로 지낼 때 전사자가 나오면 부대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직접 편대를 이끌고 출격하는가하면, 자칫하면 격추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고도를 낮춰 비행해서 승호리 철교를 끊어내어 연합사령부에서 부대장들의 박수를 한 몸에 받기도 했다.

나에게는 이제 군인이라는 목표가 생겼지만 계속 의문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 인정받는 부사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아주 단순한 의문이었다. 공군의 핵심가치 4가지가 그나마 근접했지만, 뭔가 훨씬 더 구체적인 답이 필요했다. 책에 나온 ‘군인 김신’의 모습은 나의 의문을 해소하기에 충분했다. 출중한 능력을 갖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하들에게 숭선수범하여 모범이 되는 군인. 내가 꿈꾸는 이상향의 군인의 모습이라 가슴이 뜨거워졌다. 능력은 끊임없는 노력과 공부, 부하들에게의 모습은 인품이라 생각한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투성이지만 부지런히 배워 나도 꼭 저런 군인이 되리라 다짐했다.

나는 이 책을 보고 김신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300페이지가 넘는 그의 이야기를 다 읽는 순간까지 정말 재밌었다. 반했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본받고 싶은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대방이 누구든 본인의 생각을 강경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화법을 쓴다. 예를 들어 “귀에 거슬리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이런 말을 덧붙인다. 나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논리적이지만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한다. 물론 내 논리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틀렸다고 생각한 적 또한 없다. 난 나를 믿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종종 친구들이 나에게 너무 직설적이라 상처받는 다는 말을 하곤 해서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도 김신처럼 내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는 화법을 본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애국심이다. 앞서 나는 역사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한 바 있다.

역사를 공부하며 애국심을 키웠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었구나 하고 반성했다.

“나라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최우선적으로 그 부름에 응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나를 불러 주는 나라가 있다는 것, 내가 나라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사실 자체가 나에게 큰 행복이자 보람이었다.” 이 부분이 특히 나의 애국심을 고양시켰다.

군인이 되고자하는 나에게 정말 마음깊이 새겨야 하는 말인 것 같다.

김신은 난징과 충칭에서 일본 폭격기의 폭격을 경험할 때부터 태극 마크를 단 전투기를 몰아 일본 전투기와 맞서 싸워 이기는 상상을 했다고 한다.

그는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기는 했으나 그의 적은 엇그제까지 하나였던 동족이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역사에서 후회란 부질없는 것이다. 비극적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반성과 각오가 중요하다. 동족상잔을 막기 위한 노력, 갈등과 긴장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다만 그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북한은 우리이 주적이고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해야한다. 그렇지만 본디 우리는 한민족이었음을 잊지 말아야한다. 통일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이며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나도 김신의 의지를 이어 공군으로 임관하여, 자유로운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그날을 기다린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나를 불러주는 조국이 있다는 것
소 속	연세대학교 공군학군단
군 번 / 계 급	527105 / 후보생
이 름	이정빈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읽고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글귀이다. 김신 장군의 일대기를 따라가 보며 나는 내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다. 조국을 잃은 설움, 조국을 되찾기 위해 본인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내던졌던 선조들의 희생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진정 이를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다. 태어날 때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조국의 울타리를 당연히 여기며 항상 나의 미래에 대해 먼저 걱정하던 나의 모습을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며 김신 장군의 회고록을 통해 내가 진정 나아가야 하는 미래에 대해 그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의 회고록을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 맞춰 나의 다짐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김신 장군은 책의 초반부를 자신의 유년기부터 상세히 서술하며 독립운동가의 아들로서의 삶을 생생히 그려낸다.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본인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선조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일생을 사신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로서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 타국에서 직계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일제의 압박과 견제 속 하루하루를 살아간 그의 일대기를 따라가 보면 독립운동가와 그의 가족들 삶에 대해 알게나마 경험할 수 있다. 개인적인 고충은 숨기며 오직 나라의 미래만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았던 백범 김구 선생과 그의 가족들의 개인적인 얘기에 대해 알아가고 공감했다. 이를 통해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마음가짐, 즉 과거를 잊지 않고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이름도 남겨지지 않은 수많은 열사들이 개인의 안위를 버리고 조국을 위해 희생했다는 역사를 그저 기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애국의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고 느꼈다. 따라서 나는 백범 김구 선생의

“나라 사랑은 기쁠 때, 마음이 편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못 참을 때도 해야 한다.”라는 말에 양심이 아팠다. 그렇기에 과거의 나에 대해 반성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본받자는 다짐을 해본다.

김신 장군의 군인으로서의 삶은 내가 공군학군단에 지원을 왜 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었다. 더불어 내가 현재 장교 후보생으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는가 깨닫는 도화선이었다. 김신 장군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 조종사로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읽으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본인이 목표하는 바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비록 나는 조종사가 아닌 일반 특기를 갖고 임관하게 되겠지만 김신 장군이 군인으로서 지향하는 신념은 정말 본받고 싶다고 느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절대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모습은 정말 깊게 공감하고 존경스러웠다. 특히 공군 참모총장이라는 높은 자리에서도 “전쟁에서 용감히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유용하게 쓰는 것도 군인의 애국이라 생각했다”라는 그의 신념이 기억에 남았다. 나도 내가 높은 자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신념을 유지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보다 몇몇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자 한다.

더불어 김신 장군의 한국전쟁에 대한 서술 중 미 폭격기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얘기가 내가 장교 후보생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임관 후 국가를 위해 할 수 있을지 틀을 잡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한국 전쟁에서 미군 조종사들은 낮선 환경에서 좌표만 참조하는 작전으로 인해 적과 민간인 식별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곧바로 민간인에게 억울한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이동식 공중전방항공통제관에 대해 알아보며 이처럼 국민들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는 군대의 모습을 잘 이행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장교 후보생인 현재의 내가 애국심을 더욱더 함양시켜 공군 장교로서 국가를 위해 일하고 싶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김신 장군의 예편 이후 대사로서, 교통부장관으로서, 국가를 위해 활동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나는 그의 외교관 삶을 통해 내 미래 지향점을 계획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었다. 김신 장군은 중화민국의 대사로서 한·중 우호조약을 체결하고 한국 교민을 위한 학교를 타이완에 설립하는 등 그가 외교관으로서 처음 했던 걱정이 무색하게 대사로서 역할을 착실히 수행했다. 김신 장군이 외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외교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상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타이완 대사로 부임했지만, 그의 살아온 삶과 신념이 그의 노력을 뒷받침해 주었다. 청년 시절 조종사 교육을 받으며 여러 곳을 돌아다닌 덕분에 세상 보는 눈은 넓어졌고, 그의 군인으로서의 경험은 외교 모임에서도 적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그의 과거 경험과 더불어 나라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최우선으로 그 부름에 응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의 국가를 위한 마음은 부족한 부분을 넘치도록 채워줬다. 나도 김신 장군처럼 내 군에서의 생활과 나라를 위한 마음이 좋은 상승작용을 이뤄내고 나아가 한국의 국제사회에서 더 높은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미래 목표로 잡게 되었다.

“나를 불러주는 나라가 있다는 것, 내가 나라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사실 자체가 나에게서 큰 행복이자 보람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울림을 준 부분이다. 선조들의

크나큰 희생과 노력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인 공군의 예비 장교로서 김신
장군의 신념을 거름 삼아 나는 과거의 나보다 성숙하고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조국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과거의 나에 대해 성찰하고, 나라를 위해 이바지하기 위해 현재에
노력하며, 미래의 내가 조국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나의 조국 하늘
소 속	영진전문대학교 학군부사관후보생
군 번 (교 번)	108016
이 름	조민철

이 책을 읽고 저는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신 김신 장군의 출격 일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 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인민군의 주 보급로였던 승호리 철교를 끊지 못하였지만, 한국 공군이 김신 장군의 폭격이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출격 횟수가 중요할 뿐 위험을 감행할 필요가 없던 미국과 달리 그는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아래 위험천만한 저고도 폭격을 감행 했습니다.

그 결과 철교뿐만 아니라 근방의 주요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큰 활약을 보여준 그는 강릉에서 전투비 행전대장으로 있으시던 시절,

그는 부대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함께

출격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비행기가 파탄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

하기도 하였습니다. 참모총장에게 한 소리를 들으시고 근무지기 바뀌게

되기도 하지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부대장이었던 자신이 출격 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으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런 김신 장군님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있던 것은 애국심이였으며, 그는

단지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행사는 단지 애국을

그가 훌륭한 형태로 실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동사의 꿈'을

가지고자 했다.

예전에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서 꿈을 명사로 한정하지 말라며, 명사가 아닌

동사를 꿈으로 가지라는 내용이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삶에 가치 심기 위해 나의 직업, 목표를 뒷받침할 동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동사의 꿈을 가지라고는 하지만

어떤 가치를 내 삶에 부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사자
기록사항

그런 제게 김신 장군은 제가 가져야 할 삶의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가져야 할 가치는 바로 애국이며, 이 책을 읽으면서 애국 이라는 가치는 어떤 가치보다도 크고 깊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제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 무기력한 하루 하루는, 찬란해 보이지 않는 목표들은 아직 그럴듯한 동사의 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곤 했었습니다.

삶의 가치는 더 크고, 더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고결하고 숭고한 가치를 꿈의 동사로 두기는 두려워 제가 가져야 할 가치를 눈앞에 두고 헤매었습니다.

이 기회에 ‘애국’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애국이란 것에 대해 한 번도 혼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국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애국과 가장 멀었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힘들기에, 애국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신 장군이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들을 통해 순국선열들이 지키고자 했던 땅, 국민, 가족, 꿈들을 통해서 애국의 형태를, 이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애국은 항상 가까이 있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순국선열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내 곁의 가족을, 친구들을 지키고 싶다면 모두가 애국의 가치를 꿈의 동사로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꿈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가져야 할 가치가 애국 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암살 위협에도 “내 평생 그런거 무서워한 적이 없다. 내일 목이 꺾이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던 것도, 김신 장군이 비행사가 되시겠다는 꿈을 평생

심사자
기록사항

품을 수 있었던 것도 마음속에 애국이라는 진실한 동사가,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평생토록 굳건하게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6.25 한국전쟁 중 평양을 점령한 뒤 중공군이 참전하게 되어 후퇴하게 되었을 때, 김신 장군은 T-6 을 타고 안악으로 향해 작은 낙하산에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하니 피난을 가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달아 투하했습니다.

주도로에서 벗어난 곳에 있는 안악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 덕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신 장군이 단지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더라면 이 피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꿈 뒤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책이 그저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인물을 중심으로 풀어낸 역사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